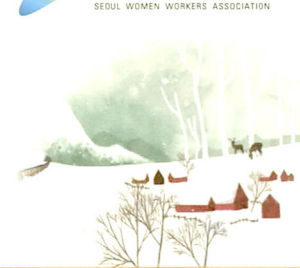


발행인 윤혜연 발행일 2012년 12월 14일(금)
 편집위원 이부민, 신문용, 강윤신, 이주혜, 김현민
 ☎ 121-8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5층
 Tel 02) 3141-3011 Fax 02) 3141-3022
 E-mail equaline@hanmail.net
 Homepage http://www.equaline.or.kr

여 · 우 · 노 · 리

시즌 2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Tel. 867-4456 | http://www.kurowoman.com/ 구로샐터지역자활센터 | Tel. 867-0516 | http://www.gurolife.org/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 Tel. 332-7171 | http://www.workingmom.or.kr



“당신과 나, 우리가 희망입니다.”

한 해가 끝나갑니다. 올해도 서울여성노동자회(부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샐터지역자활센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식지를 받을 때쯤이면 대통령 당선자도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5년 이 시작되려는 이즈음 여러분의 연발연시는 어떠하신지요?

내 삶과 내 일터의 새로운 태양을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2013년에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 내세요. 당신과 나, 우리가 희망입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본부

■ 희망날개, 전가협 가을나들이 & 교육



10, 11월 두달에 걸쳐 <우리 희망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가을나들이와 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20가정에서 25명의 참가자들이 10월 6일에는 공주 밤따기 문화체험을 하였고, 10월 13일과 11월 10일에는 부모 및 자녀 교육을 받았다. 부모대상 교육으로는 ‘자존감향상’, ‘당당한 부모되기’, ‘돈과 자존감’, ‘가족 세우기’ 등이 진행되었고, 자녀대상 교육으로는 ‘놀이로 배우는 비폭력대화’, ‘미술놀이’가 진행되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직장맘을 위한 무료특강 _ “가르치는 No하우! 안아주는 Know하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1월 10일, 12월 15일 2회에 걸쳐 직장맘과 대디, 아이까지 모두가 행복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현직 초등교사인 전성실 선생님은 직장맘이 궁금해하는 자녀교육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참여하신 직장맘과 함께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 아닌 ‘마음으로 안아주고 공감해주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다. 그외에 직장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를 참고하면 된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2012년 일촌기업협약식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28일 ‘2012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일촌기업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21개의 일촌협약업체(5인 이상, 300명 이하 사업장)와 30개의 협약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즐거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또한 업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김재진 노무사의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특강을 기획하여 최근에 바뀐 퇴직금 제도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구로샐터지역자활센터

■ 화끈, 미끈, 끈~끈한 우리, 이것이 샐터다!



구로샐터지역자활센터는 12월 21일 2012년 송년회를 개최한다. 자활근로사업단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송년회를 기획하는 것은 2006년 이후로 처음이라 더욱 뜻 깊다. 마음과 가슴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 프로그램으로는 소모임(기타, 댄스) 공연,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등이 진행된다.

▶장소 : 개봉동 K컨벤션 웨딩홀
 ▶일시 : 2012. 12. 21.(금) 오후 5시~9시

• 일터에서 날아온 소식 •

구로2동 414-20에 오면
돌봄을 드려요

1. 간단한 기업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옥대표 : (주)나눔돌봄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필요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가사돌봄서비스 2가지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 대상자는 재가장기요양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1~3등급)을 받은 분, 가사간병은 만65세 미만의 수급권자나 차상위만 받을 수 있어요.

경란대표 : 해드림은 노인돌봄과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하는데, 노인돌봄은 등급 외 A,B등급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중증질환자는 아니고 노인성질환이나 치매,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구요. 단, 만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장애 1등급에 한해서만 점수가 220점인 분들에게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1등급을 가지고도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많죠.

2. 나눔에게 질문할게요. 사회적 기업, 더 착한 기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후 달라진 것이 있나요?

영옥대표 : 좋은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작년, 올해 최우수방문요양기관으로 됐고, 제일 높은 건 다 올라가 본 것 같아요. 최우수방문요양기관으로 인센티브 받아서 언니들한테 상여금으로 줬어요. 제일 좋은 게 인센티브, 돈이잖아요~ 올해 나눔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3.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뿌듯했던 점은 무엇인가?



김경란 대표 / 김영옥 부대표

김영옥님은 (주)나눔돌봄센터에서 2010년부터 부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 김경란님은 돌봄공동체 해드림에서 2010년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경란대표 : 해드림 언니들이랑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고마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일 하면서 우리 언니들과 같이 나눔 생명도 구해보고 그래서 자부심도 커요. 어떤 분은 저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요. 하하. 이런 게 재산이고 일하는 힘이고 뿌듯해요.

영옥대표 :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눔 언니들과 대상자와의 돈독한 관계를 볼 때 좋죠.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보면 기분 좋고 그래요~

4.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영옥대표 :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이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사 갔으면 해요~ 협동조합도 계획중이에요~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경란대표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가야죠. 아무쪼록 우리 해드림 망하지 않고 잘 성공시켜야지요.

그리고 우리 언니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죠. 지금처럼 쫓겨다니고 있으면 좋겠어요.

구로샐러
지역자활센터구로여성
인력개발센터서울시직장
지원센터서울여성
노동자회“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노동법률 교육을 받고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셋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경애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예뻐하여 시작한 교사 생활이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네요.

지금은 원장으로 19명의 원아들이 생활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이끌고 있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만 주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희생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중합상담팀에서 진행하는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아이들 입장에서만이 아닌 교사의 입장과 원장의 입장에서 원 운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육의 현장에는 어느 직업군보다 직장맘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권리보호와 행복을 위해 교사들

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가 강조가 되어왔지만, 막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보호 받아야 할 일하는 여성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사업주로서 교육을 받았지만, 교사들(일하는 여성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 되어야만 아이들의 교육도 좀 더 질이 높아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 프로그램에도 우리 어린이집의 전 교직원과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많은 정보를 알면 골치가 아파진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근로자들도 제대로 알아야 각자의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감당하며 좀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노동 법률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주셔서 많은 일하는 여성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 좋은 교육을 해주신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경애 / 우성셋별어린이집 원장

이경애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아름다운 분으로, 이번 교육에 자기 일처럼 나서서 교육대상자 섭외에 애써주셨습니다.

“취업하신 이주여성여러분 파이팅~!”

구로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과정인 ‘커피바리스타와 브런치 요리’ 과정이 끝난 지 2개월이 되었다. 과정의 특성상 실습처와 업체발굴이 필요했지만 담당 선생님이 바뀌면서 비교적 늦게 업무 파악이 되었다.

마음이 무겁던 찰나, 구로구청에서 바리스타관련 공공근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먼저, 구로구청 일자리 지원과를 통해 소식을 듣게 되고 사회복지과 담당직원과 미팅을 통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바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구로구 구민의 결혼이주여성을 섭외하였다. 섭외전화를 하던 중 교육수료 후 다양한 일들이 있을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분, 현재 다른 일을 찾아 하고 계신 분 등 조건에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부터 난관에 빠져들었다. 하겠다고 하셨던 분도 전화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겨우겨우 일정에 맞춰 선생님을 섭외된 후 함께 동행면접을 진행한 후 드디어 두 분이 바리스타로 취업이

되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분의 취업이라는 큰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이 일의 더 큰 보람을 느낀 순간은 지난 11월 28일 센터에서 진행된 2012 서울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할 때였다. 박람회 이벤트 중 참관객들에게 아메리카노를 서비스 하기로 기획하였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기엔 센터 직원만으로 힘이 들던 찰나에 바리스타로 일하고 계신 분께 혹시나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흔쾌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월차까지 내시면서 센터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다. 너무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자, 그분은 오히려 제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더 감사하다며 영광이라고 하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김해영 / 취업설계사

김해영님은 이주여성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중국어가 특기라 이주여성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서교동 서울여노 사무실에 오면 낭랑한 목소리로 관리사나 고객과 통화를 하는 이명선 지부장님을 만날 수 있다.

공예과를 졸업한 지부장님은 2005년까지는 16년간 아현동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했다. 1층에 학원, 3층이 집이어서 바깥생활이 없었다. 2005년 아현동이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학원을 접게 되었고, 그 해 말 마포구 지역신문에서 무료보육사 모집정보를 보고 서울여노의 문을 두드렸다. 1기로 40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때부터 보육사 일을 시작했으니 서울여노를 알게 된 지 벌써 7년이 되었다. 그때는 사무실에서 업무 보는 사람이 참 부러웠었는데 어느덧 상근한지 3년이 되었다.

지부장의 업무는 관리사 양성 및 교육, 회의 진행 등 많지만 주된 일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객과 관리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 일은 서로 믿고 집안일을 맡기는 것이어서 고객과 관리사의 공감이 중요하다. 한번 감정이 상하면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 가운데서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관리사들이 일을 잘 못하거나 고객과 맞지 않아서 하루 만에 일을 그만 둘 때, 한두 달하다가 일이 힘들다며 그만둘 때는 아쉬울 때가 많다. 하지만 잡을 수 없는 입장이고, 강요는 못 하니까 마음을 접는다. 서로 인



연이 다 했나보다 생각하고 마음을 접는 것이 속 편하다. 하지만 열심히 연결한 덕에 고객과 관리사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는 뿌듯함을 느낀다. 일자리가 들어왔는데 관리사님의 거리, 시간 등 조건이 안 맞아서 연결이 안 되고 일자리를 놓치게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지부장님은 가사 일이 즐겁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의 연락을 기다린다(T. 02-3141-3019) 오늘도 일자리 발굴을 위해 컴퓨터와 전화를 붙잡고 씨름해본다.

이명선 / 전가협 서울서부 지부장

이명선 지부장님은 1남 3녀의 엄마노릇과 몸이 아프신 82세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까닭에 고될 법도 하지만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 기획 •

직장맘의 3고충 해소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3고충(직장, 가족, 개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일·가족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직장맘 지원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역시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므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을 위한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원스톱으로 종합지원하게 된 것이다.

직장에서의 고충해소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돕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한다.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거나 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직장맘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직장 혹은 집 근처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인 지원뿐 아니라 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나 남편과의 갈등, 가족과의 소통 문제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간단한 신청을 통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 근로자를 위한 노동권, 직장맘을 위한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강의를 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지원한다.



가족관계에서의 고충해소

- 전업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육정보나 교육정보의 수집이 취약한 직장맘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DB를 구축하여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를 통하여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직장맘의 최대 고민인 자녀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포구 신수동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주민자치센터내의 마을문고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직장맘 자녀돌봄 '늘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늘품교실'은 직장맘의 자녀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돌봐준다.



자녀돌봄지원사업
마포구 신수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식



자녀돌봄지원사업
신수동주민센터 3층 마을문고에 마련된 '늘품교실'

개인, 여자로서의 삶의 행복

- 직장가 가정에서의 고민이 해결되었다면 인간으로서, 나 자신의 행복도 놓쳐선 안 된다. 자녀와의 친밀한 대화를 위해서는 자녀교육 노하우를, 취미생활이 어려운 직장맘을 위해서는 바느질 등의 다양한 취미 활동을, 힘든 직장일로 인하여 심신이 피곤한 직장맘을 위해서는 춤이나 요가를 통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직장맘을 위한 강의를 마련하고 있다.



커뮤니티지원사업
현직교사에게 듣는 직장맘 자녀교육 노하우
"가르치는 No하우, 안아주는 Know하우"



커뮤니티지원사업
직장맘과 클라가 함께하는 "한땀한땀 엮어가는 나와 아이 이야기"



일·가족양립지원사업
'찾아가는 직장맘 생산적인수다' 프로젝트 : "연극놀이를 통한 출생자 치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직장맘'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무직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혹은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지 않아도 일하려는 마음이 있는 모든 여성을 말한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직·장·맘'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동권·모성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 직장맘이 알아두면 힘이 되는 직장 내 권리



직장맘을 위한 3고충 해소 프로그램
직장맘도 이렇게 하면 좋은부모 될 수 있어요!

여우와 함께 하며

이 꼭지는 서울여노의 자문위원 및 이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또는 여노와 함께 하며 느끼는 단상을 나누는 란입니다.

가정관리사, 요양보호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도시가스검침원... 다양한 여성노동자를 만났다. 상담도 하고 체불 임금으로 소송도 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냈다. 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나 외국의 입법례도 연구했다. 경험이 쌓일수록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은 점점 확고해 지고 있다. 여성노동운동의 중심에 변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해결은 여성노동운동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여성노동운동의 주인공은 여성노동자다. 여성노동자가 단결하고 싸울 때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거창한 생각으로 시작한 변호사일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 윤지영 변호사는 2010년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 소송 승소, 가사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관련 활동 등 여노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변호사

소개합니다

구로샐터의 새 희망 박은영, 김정금



박은영 / 김정금

♣ 최근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금] 아.. 사실 저는 조금 오래전부터 드림을 쳤거든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시골 농가에서 방음장치 잘 된 한 칸에서 드림 치며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참 드림이란 약기가 매력있더라고요.

[은영] 제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여기는 그것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수사업단을 하라고 해서 겁도 나긴 하지만 잘 배워서 해보면 사례관리 그 쪽도 공부 해보면 좋겠구나 싶어요.

♣ 자활, 가정, 개인으로의 각자의 목표를..

[정금] 둘째가 고등학생이 되면 밖으로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때 되면 일과 겸해서 사회복지를 정식으로 공부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정말 소중한 자활센터와의 인연으로 자활안의 참여주민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요~ 아이고, 어려워라~

[은영] 이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 자체를 오~래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정확히 찾지 못했어요. 지금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일을 해가면서 정확히 찾아봐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전문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 박은영님은 2012년 3월 2일부터 복지간병사업단과 서울시희망의인문학 담당으로 상근하고 있으며, 김정금님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알뜰가게, 여우씨사업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추억



1992년 8월 30일, 서울여노가 구로동에 여성복지회관을 짓고 개소식을 했다. 당시 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축사를 했는데 유명인사가 온다고 온 동네 길이 막혔다고 한다. 마이크를 들고 연혁보고를 하는 유옥순 당시 부회장과 맨 왼쪽 배옥병 부회장의 모습이 보인다.

• 여우가 만난 사람 •

체신부... 한국통신... KT 와 함께 한 그녀의 33년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민영화)

| 이재숙 회원 |



* 편집자 주

서울여노 후원회원인 이재숙 선배는 KT와 함께 청춘을 보냈다. 1959년생인 그녀가 고교졸업후 10:1의 경쟁률을 뚫고 79년 114안내원으로 체신부에 입사해 82년 결혼, 1남 1녀를 낳고 90년 노조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KT 노동인권백서 발간을 계기로 그녀를 만나보았다.

민주노조 출범과 함께 여성국장 활동 시작

89년까지는 노조가 있는지도 몰랐다. 간접선거로 위원장을 뽑던 여용노조 시절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던 그녀가 89년에 사물놀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노조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94년 5월 직선제로 민주노조가 출범하자 선거를 돕던 선배는 여성국장으로 발탁된다. 이 당시 조합원이 전국 5만명이나 되었지만 현재는 25,000명 수준. 여노를 알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여성국장 일을 잘 하기 위해 여성민우회, 여노회 등 여성단체를 찾아다니던 것이었다.

노조활동 중 잘 했던 일을 물었다.

95년 1,000명 명예퇴직 때 사측에서는 신규채용하지 않으려했지만 노조의 요구로 500명 신규채용을 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또 96년엔 경견완장*에 대한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100일간 농성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고 휴식시간 확보(50분 근무, 10분 휴식), 작업환경 개선, 점심시간 보장, 휴게실 환경개선 등을 이뤄낸 성과가 있었다.

구속, 투옥, 해고, 복직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던 어느 날 그녀는 '국가전복세력'이 되어 해고된다. 김영삼 정부시절 95년 지자체 선거 때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한국통신노조 집행부가 거의 구속되고 해고되었다. 그녀는 4년 구형에 선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때 2달 구치소 생활 후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노조에서 기존여성들만 보석으로 먼저 빼주었기에 가능했다.

추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은 하였지만 노조와해 작업으로 인해 96년 말 선거에서 다시 민주노조에서 여용노조로

바뀌게 된다. 114안내원이었던 선배는 99년 3월15일 기술파트로 복직되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강도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이 그만 두었다. 95년 1,000명, 2003년 5,500명, 2009년 6,000명이 명예퇴직을 당했다. 말이 명퇴지 내용상으로는 해고나 마찬가지여서 한번 명퇴 바람 불 때마다 전 직원이 몸살을 앓았다.

문제는 해고해도 일이 돌아간다는 것!

하지만 사람들은 높아진 노동강도에 엄청 아프고 여러 이유로 죽어갔다. 직접적인 산재판정이 안 나왔을 뿐 사실상 업무상 과로 인한 산재였다. 또한 전에는 114 안내도 안내원이 눌러서 고객 전화를 받는 수동식이었는데 자동으로 바뀌고 나서는 섬 없이 안내전화 콜이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콜을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갈수록 노동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올해 12월 10일 출간된 KT노동인권백서에 자세히 실려있다(KT노동인권센터 발간).

그녀의 현재

그녀는 올해부터 KT 신촌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맡은 일은 영업이다. 핸드폰, 인터넷, 방법시스템, TV 등에 대해 영업을 하고 지역관리도 한다.

또한 매주 월요일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 인생공부가 많이 되고, 이주노동자와 함께 수업 받으며 그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으므로 여성단체에서도 많은 관심 가졌으면 한다고 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 경견완장 - 직장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서 일을 하다보면 어깨나 목, 팔이 아프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

• 신입 정회원 교육 후기 •

잔잔한 호수에 돌맹이가 던지워졌다.

가슴 속에 퍼져오는 그 잔잔함은 진동 첫 느낌이었다. 역사를 남의 일인양 무심코 살아왔던 인생길에 나 자신은 굳이 애꿎은 책임을 묻고싶다.

그곳에 함께 있지못함을...

무수한 세월속에 앞선 선배들의 희생이지 않는가?

내가 지금 보다 나은 혜택과 삶을 주어진것에 대해 너무나 값없이 받고있음을 알면서 가슴이 저며온다. 감사해야될 것을 무지해서 몰랐구나하고...



| 장성희 |

IMF 이전은 가족생계와 싸워야했고 IMF 이후로는 두아이의 엄마로서 홀로서기를 해야했다. 12년전 나는 여성 단체를 통해 도움을 청한적이 있었다.

그곳에 잠시 머물렀을때 세상의 상처를 받아서 모인 여성들이 많았다.

그러나 며칠을 묵으면서 내가 찾은 진실은

그들은 최악의 조건으로 돌아가는 원점이었고 포기하는 것만을 보았다는 것이다.

난 그럴수가 없었다. 이렇게 무너질수 없어 지금껏 열심히 살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오는동안 여성복지는 나날이 좋아졌고 그곳에 내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를 아쉽게 했던 것이 있었다.

서울 여성노동자회 윤혜연 회장님의 일대기를 듣고서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개인발전을 위한 도전에 있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분의 도전과 희생과 인내와 진보적인 삶은 나를 충분히 흥분하게 했다.

나는 생각한다. 지금 이 충분한 마음을 성실히 도전해보리라...

끝으로 앞서 희생하신 선배님들께 감사하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한다.

장성희님은 2011년 11월부터 구로샐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알뜰가게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서울여노의 신입 정회원 교육은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하여 진행되고 있다. 여성노동자운동과 활동가의 역할, 여성관련 노동법, 여성주의 바로알기, 서울여노의 역사 등 선배님들과 전문가들의 뜻 깊은 강의와 회원들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2012년 신입정회원교육

» 후원명단

강보은 강은숙 공유식 구본권 김경희 김도남 김금자 김 린 김명희 김미례 김미리 김미정 김민선 김상열 김성혜 김수경 김숙자 김신연 김영철 김용신 김용애 김정숙 김지미 김지영 김 진 김진희 김하린 김행자 김현숙 김혜진 남을순 노현주 민현정 박가현 박경숙 박경조 박선영 박옥엽 박은국 박정화 박지영 박진영 방송희 배금이 배옥병 변경미 봉만수 서혜경 성화주 성훈화 송기진 신미연 신민정 신은순 심상연 안정연 여인심 연정림 오성화 오세정 오정민 유미영 유시주 유선웅 윤선주 윤혜숙 이경영 이국희 이규진 이근호 이기홍 이명선 이미영 이민숙 이박미 이봉화 이소영 이승란 이영미 이유정 이인순 이인재 이재숙 이재운 이지수 이한본 이효현 임내옥 장서연 장영선 장진호 정지선 정현백 조수진 조운숙 조은영 조자영 조지훈 조춘례 최경희 최선희 최성호 최승만 최원호 최현주 최혜순 한민영 한순복 한영규 허복하 허세영 황옥진 선택미륵 서태원(모듬삼방)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처음의 설렘... 마지막까지 ^^ ... 김현민
• 12월 19일 대선보다는 우리의 활동내용을 1번에 읽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실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 강운신
• 끝났다!! x5 ... 이주혜
• 진짜 끝났네. 속 시원합니다. 이번 호 편집위 뒷풀이는 제발~ ... 신문용
• 맞춤법을 더 공부해야 할까? 논의는 뒷풀이에서... ... 이부민